

불자연에인들

“올해도 자비 발길 바빠요”

소년가장·재소자·해외동포 위문공연 잇따라

새해들어 연예인 불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대중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연예인들은 불법행위에 그 영향을 살려 그 동안 신명활동뿐 아니라 활발한 봉사활동을 해 왔다.

「물집문명이 빛어낸 파문아에게 사랑을, 불신종교가 만연한 사회에 자비를,이라는 신년활동방향을 정한 불자연에인들은 공연으로서 '부처님 말씀 필치기'에 한류를 단단히 해낼 각오로 그 어느해보다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행과 자비실천을 목적으로 연예인 불자들이 모여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연예인 불교회, 백련장학회, 불자 가수회, 연예인자비회 등이다.

지난 90년 6월 6일 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연예인불교회(회장 송해)는 결성 이래 매월 셋째주 화요일 2시 30분 정기예배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연예인 불교회는 더욱 활발한 신명활동으로 적극적인 불자상을 제시하는 것을 신년지침이자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다.

“서로를 바른 일짐에도 불구하고 100여 회원들은 한결같이 정기법회날이면 열일 재쳐 놓고 부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린다. 이는 불자연에인들의 긍지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송해씨의 자랑이다.

송해씨를 회장으로 「이타행」을 모인 결성의 취지로 삼고 있는 백련장학회는 91년 3월 발족 이래 줄곧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있는 봉사단체로 4년째 16명의 불우한 중고등학생에게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백련장학회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그들에게 숨은 후원자로 보살핌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회장 송해씨는 “우리들의 작은 정성으로 어린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을 그곳이 이겨 훌륭한 학생으로, 사회인으로 성장할때 우리 회원들은 눈시울이 뜨겁도록 보살핌을 느끼고 싶다”고 말했다.

백련장학회는 더 나아가서 소년소녀가장들을 확대해 알려지지 않은 고아인들을 찾아 모성애, 부성애의 사랑을 나눠 줄 기회 또한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20일 영동포교도소 방문을 시작으로 재소자들의 재활도 도울 계획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이웃을 자비의 실천 행으로써 품안에 꼭 보듬어 안아 주고 싶다는 것이 백련장학회 300여 회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지난 13일 양산 동도사 청년회주최 소년소녀가장들이 자선 공연을 마친 불자가수회(회장 진승남)는 포교활동뿐 아니라 2월 2일 르만다 난민돕기공연, 3월 전국방문불자회 위문도 계획하고 있는 등 95년도엔 의미있는 행사에뿐만 아니라 소외된 곳을 직접 찾아 나설 계획이다.

회장 진승남씨는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곳을 찾아 향기로운 노래로써 부처님의 승경을 느끼게 하겠다”고 새해 의지를 설명했다.

연예인자비회(회장 지연)는 안으로는 불성회복을, 밖으로는 군부대·교도소를 위문공연 및 포교활동을 전개할 방침을 세워 놓고 지난 1일 탐방공연 노인 위안잔치를 시작으로 4월에는 연변일보사가 주최하는 중국 연변동포 위문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천주교서 개종한 가수 김세레나씨

집안대대로 성모마리아를 신앙하던 천주교인 김세레나씨. 지난 연말 김씨는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했다.

그의 이름에서 말해주듯 김씨는 마리아스님인 고통학교에서 ‘세레나’라는 세레명을 받았고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살았다.



김씨는 “할머니와 아버지는 성당에 나가셨지만 어머니는 절에 다녔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나에게도 불교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내가 개종하기에 불자가수회의 도움이 무

“불법 믿은후에 심신 편안해요”

엇보다 컸다”고 귀띔했다.

김씨가 불자로 개종하는데 큰 힘이 된 불자가수회 부회장 김미희씨는 “김씨가 천주교인이면서도 행동 하나하나, 사고 하나하나가 상당히 불교적이었다”고 전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른 일정과 진정성 속에 꽃기는 나의 심신을 편안하게 한다”고 말하는 김씨는 “불교인으로 살도록 도와준 불자가수회와 더불어 신명활동뿐 아니라 봉사활동에도 적극 동참해 성실한 불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피력했다. 김씨를 불교인으로 이끈 불자가수회는 앞으로 젊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포교사업을 펴 나갈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선>

해외통신

관음보살상 주화에 새겨 중국서 3천세제제작

자비의 화신 관세음 보살상이 처음으로 주화에 새겨졌다. 미국 판다 아메리카(Panda America)지의 보도에 따르면 1994년 중국에서 관세음상이



새겨진 은화를 시범적으로 3천 세트 발행했다고 한다. 각 세트에는 손에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거나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등 서로 다른 자제의 관음상주화가 4개씩 들어있다.

이탈리아에 불자 급증 영화 '부다'·축구스타 영향

카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도 불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가브리엘 데 로사신부는 이미 이탈리아에 3만명의 불자가 있다고 13만 5천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전했다.

이에따라 로마교황청 발행 격주간지인 라 시발라 카톨릭지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 '리틀 부다의 성공, 불자인 이탈리아 축구선수 로베르토바지오를 위시한 불자들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일부 교회 당국자들은 더욱더 많은 카톨릭신자들이 불교로 개종하리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Tricycle 1994, 겨울호 인용, 박미영 기자)

스리랑카, 교황방문 거부 "불교수행과정 잘못 이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74)는 지난 12일부터 아·태지역 순방에 나서 21일까지 필리핀·파푸아뉴기니·호주·스리랑카 4개국을 방문하던 중 스리랑카 불교계의 방문거부 요청으로 인해 순탄치 못한 일정을 보냈다.

불교적인 스리랑카에서 교황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는 최근 베스트 셀러가 된 그의 저서(희망의 문턱을 넘어서(Crossing the Threshold of Hope))에서 불교의 수행과정을 부정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비롯됐다.

“한국의 불화”가 편찬된다. 전국 사찰에 산재된 불화들을 하나로 모아 도록으로 묶어낸다는 데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훼손의 우려가 높은 불화를 도록화 함으로써 영구히 자료로 남길 수 있다는 점이 우선적인 의미다.

이 작업을 추진하는 석정스님과 범하스님도 이 점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불화들을 도록으로 묶어냄으로써 도난의 여지를 없앤다는 것. 사실 문화재 도난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불화들이었다. 관심의 정도도 낮고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모를만큼 정리도 되지 않았던 것이 불화였기 때문이다.

또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불화들의 제작연대나 그

종단발전특위 53명 구성

태고종 2월부터 개혁작업 착수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은 지난 5일 총무원회의실에서 종단간부 회의를 열고 제 69회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종단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위원 53명을 구성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무원장 서봉스님을 비롯 3부기관장 스님과 각 시도 교구총무원장 스님들이 참석해 95년도 중요사업실행계획과 종단현안문제, 종권수호방안, 종단특별위 구성문제등을 논의했다.

법화종 미얀마 방문 양국교류 논의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김대호)은 미얀마 총무부장관의 초청으로 지난 10일부터 7일간 미얀마를 방문했다. 법화종은 미얀마 총무장과 양국간 불교교류발전을 도모키 위한 결연을 맺고 오는 3월 경 미얀마 총무장들을 한국으로 초청, 불교교류에 관한 문

의를 거쳐 2월 총회에 상정한다.

성남 자광원 위문 태고종 총무원

지난 연말부터 총무원사업의 하나로 이웃돕기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태고종총무원은 17일 성남 부처님마을 '자광원'(원장 김정자)을 방문하고 의류 신발등 생필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법화종 미얀마 방문 양국교류 논의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김대호)은 미얀마 총무부장관의 초청으로 지난 10일부터 7일간 미얀마를 방문했다. 법화종은 미얀마 총무장과 양국간 불교교류발전을 도모키 위한 결연을 맺고 오는 3월 경 미얀마 총무장들을 한국으로 초청, 불교교류에 관한 문

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불교총흥 맞을려 선우도량 2기출범

선우도량(대표선우 도법스님)이 '올바른 승가상 확립'을 통한 승중진작과 불교의 올바른 사회적 실천을 기치로 내걸고 불교총흥에 일로매진할 제2기 출범의 뜻을 올린다. 선우도량은 오는 3월 16·17일 양일간 지리산 실상사에서 수련결사 및 총회를 열고 제2기 집행부와 실행선우를 선출하는 등 실질적 위상정립을 꾀하기 위한 포석을 놓게된다.

그동안 자체정비에 주력해 온 선우도량은 이번 수련결사를 통해 한국불교 전반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밀양 천황사 「석불좌상」 보물지정

문체부, 경북 파계사 「영산회상도」도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0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경남 밀양 천황사 석불좌상, 파계사 「영산회상도」를 보물 제1213, 1214호로 각각 지정했다.

경남 밀양 천황사 천황사 경내에 있는 석불좌상은 광배만 없었던 대좌와 몸체부로 이루어진 8세기 후반의 통일신라시대 불상이다. 이 불상은 특히 대좌의 하대부분에 사자좌를 갖춘 현존유일의 불상으로 신라조각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경북 달성 파계사에 있는 영산회상도는 1707년(조선 숙종33년) 왕실의 발원으로 조성된 군진도 형식의 불화로 다른 영산회상도와 다른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 불화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첫째, 석가여래의 키형광배에 두광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고 둘째, 불의에 흔히 쓰이는 복권문이 없으며 셋째, 오른쪽 발목에 꽃잎같은 장식(치기)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18세기 초 우리나라 불화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다.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전국 60곳...전문강좌 늘어

불자들의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시키고 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불교양대학이 다양한 학과를 개설하고 9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80년대 초부터 생겨 현재 50여개를 헤아리고 있는 불교양대학은 고리강좌·생활문화강좌등은 물론 점차 전문적인 강좌도 늘고 있는 추세.

전국 각사찰이나 포교당을 중심으로 개설된 불교양대학은 성지순례·철야정진법회 등도 마련, 신앙고취와 교양을 함께함양토록 해 불자교육의 모델로 정착될 전망으로 직장인·주부등 불교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의 좋은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특히 조계종 포교원에서 포교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해 불교양대학 과정을 이수한 불자를 대상으로 '포교사교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불교양대학에 대한 불교인들의 관심과 동참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근 기자>

불교교양대학 모집안내

학교명	모집학과	원서마감	개강	연락처
대원불교대	불교학술강·종교사	2월말까지	3월초	(02)776-7156
동산불교대	정규반, 통산반	2월8일까지	2월11일	(02)732-1206
해동불교대	법사과, 삼장법사과, 해외정법사과	2월28일까지	3월2일	(02)741-0495
동방불교대	불교학과, 법과, 불교미술과, 한의학과	2월17일까지	3월초	(02)763-0229
삼화불교대	불교학과, 중국어과, 신문방송과, 유아교육과, 불교미술과	1차:1월27일까지 2차:2월28일까지	3월초	(02)511-1080
대구불교대	전공반, 교양반	2월25일까지	3월초	(02)256-3725
금강불교대	한태학과, 불교학과	2월11일까지	3월초	(02)464-3306
화엄불교대	불교교양반	2월중순	3월초	(065)275-1018
조계사불교대	불교학과 (주간, 야간, 통산반)	2월25일까지	3월20일	(02)720-6742
광주불교대	불교학과, 법사과	3월20일까지	3월2일	(062)375-7600
금정불교대	초급반, 중급반, 특별반, 경전연구반	2월22일까지	2월27일	(051)866-7277
전북불교대	불교학과, 보현학원	1월28일까지	3월5일	(065)286-3977
화엄불교대학교	기독교교육과정	3월18일까지	3월16일	(02)933-0180
동국불교전립	전교사과정, 장법사과정, 기초교리 과정	1월27일까지	3월초	(051)465-6242
부산불교교육대	포교사반, 교양반	2월말까지	3월2일	(051)818-8659
부산불교교육원	입문자 과정	2월8일	2월9일	(051)466-4079
이리불교대	입문자 과정	2월말	3월초	(065)54-1578
한국불교법사대	법사과정, 오종교법사과정, 오종재법사과정	2월28일	3월초	(02)720-1836

진리의 전 화

부처님 품안 마듯한 가정 구룡사 부설 인생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종단협 정관계정 추진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김주승)는 지난 1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관계정을 위한 11인 소위원회 구성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교황종 여래종 총무원장과 보문종 부원장 및 부장들로 구성된 11인 소위원회는 종단협 부회장단 확대, 상임이사회 활성화등 종단협 활성화와 정관계정 추진을 위한 정관계정 사업계획 예산등을 작성 이달말 회

목탁 소리

임연태 (취재2부 차장대우)

두스님의 원력

작업 과정에서도 몇점의 불화들이 대단히 가치있는 성부로 판명됐던 점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기왕에 시작된 이 대작을 사는 10년이 더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야 한다. 석정스님과 범하스님의 원력은 그런 의미에서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전국의 사찰을 답사하는 두 스님의 원력은 이제 불교 전체의 원력으로 증폭되어야 한다. 본·말사별로 진행될 이 작업에는 모든 사찰이 동참해야 한다. 그래서 불화뿐 아니라 보다 정확한 사지(寺誌)도 펴내는 문화적 안목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본·말사가 참여한 경우 이 불사의 회향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아울러 종단과 진흥인등도 이 불사를 개인의 인력이라고 구경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불교성지순례

귀의삼보하옵고
지난 해 보내주신 여러 불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해년 한해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주) 혜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합장

인도·스리랑카 15일

출발: 2월 12일 · 동참금: 215만원

일정: 서울-델리-럭나우-발람푸르-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살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부다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오랑가바드(엘로라·아잔타)-봄베이-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론나루와-덤불라-아부비하르-캔디-콜롬보-싱가폴-서울

스리랑카 6일

출발: 2월 10, 24일 · 동참금: 108만원

일정: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폴론나루와-시기리야-하바라나-덤불라-아부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인도네시아 5일

출발: 2월 19일 · 동참금: 85만원

일정: 서울-덴파사-죽자카르타-자카르타-서울

인도·네팔·태국 11일

출발: 3월 2일 · 동참금: 165만원

일정: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살리-쿠시나가르-카필라바스투-기원정사-사왕성-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라이엠티)-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사원)-서울

대만 5일

출발: 2월 20일 · 동참금: 65만원

일정: 서울-타이페이-고웅-화롄-타이페이-서울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수송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 544-1533 (대)

혜초여행사